

# 10월의 어머니

이 수 복

**고향**의 햇밤을 받았던 가을이었다.

여문 알밤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아직 덜익은 풋밤이 들성 들성 섞여 있었으나 어머니 냄새가 물씬 배어있는 충청도 고향밤에 나는 왈락 눈물이 솟구쳤다. 밤색깔로 보아 내가 어릴적에 동무들과 함께 잘 다니던 황용굴(黃龍窟)이 있는 앞산의 밤이 분명했다.

유난히도 황홀한 저녁놀이 불타는 징검다리를 건너 언덕배기를 오르던 산, 거긴 싸리꽃이랑 보라빛 도라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산새, 땃새떼가 등지를 틀며 싸국새 또한 구슬피 우는 곳이기도 하다. 이젠 빛바랜 갈대잎만 휘날리는 산허리에 아무리 목놓아 소리쳐 통곡한들 반기심이 없는 어머니가 되셨으니 나는 그동안 쌓이고 겹친 슬픔에 가슴 터지도록 꺾꺾 피울음을 토하는 비참한 여인이 되었다.

그 가을에 어머니를 잃었다. 딸 자식이 뭐 길래 더군다나 출가한 딸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도 급히 찾아오셨던가? 무정하게도 어머니에게 그 길이 생의 마지막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해산(解産)의 진통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곧바로 집

근처의 산부인과 의원을 찾아갔다. 그 때 시각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84년 10월 20일 새벽 3시경. 내가 병원에 들어선지 불과 3시간이 조금 지난후 병원 2층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불난 건물은 6층건물로서 1층에 응급실, 진료실이 있었고 2층엔 사무실과 입원실 일부, 3층은 전체가 입원실이며 4층부터 6층까지는 주거용 건물이었다. 2층에 있는 사무실에는 석유난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었는데 화재는 석유난로의 급유 방법을 잘 모르는 간호원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그 날의 화재로 어머니와 함께 죽은 사람이 4명, 중화상 3명, 그리고 8명의 경상자 외에도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 등 실로 엄청난 피해가 났다. 말로만 듣던 불,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다.

건물들이 밀집한 도시의 병원에서 한 생명의 탄생을 지켜 보시려던 어머니는 불이 나자마자 대부분의 임산부와 신생아, 그리고 그 보호자들처럼 서둘러 5층으로 올라가 왼쪽의 건물 옥상으로 연결된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옆 건물로 나를 어렵게 대피시켰다.

그리고나서 어머니는 다시 3층 입원실로 내려가 소지품을 챙겨 가지고 윗층으로 올라 오시던중에 병실 바닥의 비닐장판과 내장재가 타면서 내뿜은 유독 가스에 질식되어 그만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쓰러지신후 영영 일어나지 못한 채로 세상을 하직하시고 말았다. 어머니의 죽음.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감격을 몇 번이나 맛 보는지 모르나 나는 유달리도 어머니에 대한 감동이 깊다. 그것은 절망하거나 삶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고난속에서 그토록 험난한 세파를 깨끗하게 견뎌오신 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소위 청상과부의 처량한 신세로 온갖 곳은 일과 갖은 수모를 겪으시며 그래도 넋이나 되는 자식을 나름대로 훌륭히 길러내신 어머니였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은 더욱 깊을 수 밖에 없었다.

나를 낳으시느라고 몇 말의 응혈(凝血)을 흘리셨을테고 뜨거운 혈유(血乳)를 먹이시며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금이야 옥이야 길러 주신 어머니, 게다가 곱게 장성한 후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등직한



신랑감을 찾아 여위살이를 잘도 시켜주신 어머니를 졸지에, 그것도 불의의 화재로 잃고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에 미칠것만 같았다.

실화자인 간호원은 난로불이 켜진 상태에서 석유를 넣다가 연료통이 아닌 기름받이 접시에 많은 양의 석유를 부었다. 이 때, 송유관을 통하여 심지어 안통으로 들어갈 석유가 불붙은 심지위로 넘쳐 흘렀고 난로 본체 밖으로까지 흐른 석유에 눈깜짝할 사이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불이 아주 크게 번지자 당황한 간호원은 어쩔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1층의 진료실에 연락하고 자신은 119를 돌려 화재발생을 신고했으나 이 때는 늦었다.

특히, 난로 주위에는 불과

1m거리 안팎으로 가연성이 높은 의자, 소파, 집기 등이 있어 불은 순식간에 2층 전체로 건잡을 수 없이 크게 번졌다.

몇초의 자비와 관용조차 베풀지 않는 무서운 불은 벽의 가연성 내장재를 타고 계속 번져 사무실 내벽에 설치된 전원함을 태웠고 이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정전까지 되어 화재발생 초기 진화에 실패함은 물론 한밤중에 화재를 당한 건물내의 사람들을 피난시킬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아! 이 얼마나 끔찍스런 일인가?

불더미 속에서 쓰러진채 사람이 타죽어 가는 처참한 광경은 상상하기조차도 싫다.

아비규환.

아우성치는 울부짖음은 차마 들을 수 없는 절규였다.

그날, 한 사람은 5층에 있는

식당의 주방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일단 옆의 건물로 피신했지만 이미 휩싸인 연기와 유독가스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 지상으로 뛰어 내려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무척이나 미련스런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를 불에 타 죽게 하다니 정말로 원통하고 서러운 일이었다.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데……

어두운 밤하늘에 휘황청청한 달이 걸려 세상을 밝히듯 어머니는 내 영혼까지도 환히 밝혀 주셨으니, 그 후광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통찰의 빛이 되어 주셨다.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를 사모하고 그동안의 불효를

가슴치고 눈물 뿌리며 후회하는  
통한의 것이라 더욱 밝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아! 사랑의 어머니.

난방기구 사용시의 하찮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원망스런 간호원의 실수가  
15명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초래하다니……

그것은 물론, 불이 켜진  
석유난로에는 절대로 석유를  
넣지 않는다는 안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점에서도  
문제려니와 화재발생후의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초기  
소화방법, 소방서에의 신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 등등,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방화교육  
내지는 화재예방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점에서 더욱 분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였다. 더구나 인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소중한 생명을 억지로  
강탈 당한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 더욱 억울하고  
원통했다.

그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지만 유지 관리가  
부실하여 화재 발생시 작동치  
않았음에 또 한번 피가 끼꾸로  
흐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 다음으로 건물의 내장재가  
불에 잘 타는 비닐이나 가연성  
제질이어서 유독가스 발생이

많은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게 됐다. 따라서  
병원측이 자체점검은 물론

소방관서나 유관단체의 점검,  
지시, 또는 자문에 귀기울이며  
적극 협력했는지를 의심케 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잃은  
나의 어리석음은 왜 어머니가  
다시 3층으로 내려 가실 때  
못가시게 붙잡지 못했나 하는  
후회로 두고 두고 한이 되었다.

“김서방이랑 내가 오면 졸깃한  
참쌀떡 해주려고 팔 많이  
심었다.”

하시던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듯 하다. 그러나, 팔이  
여물어 씨가 되고 그 씨가 다시  
나도 한번 가진 어머니는 오실  
줄을 모른다.

추석이 가까워 온다. 이때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기일(忌日)이  
다가온다. 올해도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 어머니  
제사에 참석해야지.

어머니!

그립고 보고파, 덜컥거리는  
철마 타고 단숨에 왔습니다. 언제  
봐도 믿음직스럽다던 김서방도  
왔구요, 귀염둥이 외손녀  
미영이도 왔어요. 어머니께서  
마지막 하시던 날 태어난 외손자  
훈이도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의 절을 받으셔야지요.  
특히나 훈이의 절만은  
일어나셔서 반겨 받으세요.

녀석의 탄생을 보시기 위해  
오셨다가 못오실 길로 영영  
가셨으니 차라리 미움다 돌아  
않으시면 이처럼 서럽지  
않으려만……

훈이는 커가면서 어쩔  
어머니를 꼭 껴 닮았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검은 속눈썹,  
가름한 얼굴, 게다가  
걸음걸이까지 아주 꼭  
닮았습니다. 그러기에 예미  
사랑을 더 받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흘러 가신지 어언 4년,  
그래도 잊힐리 없고 억울한  
죽음에 오히려 몸마저 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아침 신문에 또한번 분통  
터지는 기사를 보았다.

「대형건물 소방시설 부실」  
나의 어머니처럼 또 누가  
죽어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비참한 내 어머니의 죽음은 바로  
내죽음일 수도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가  
나처럼 평생을 두고 가슴에 못  
박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불, 불조심. 생명과 재산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내 평생 어머니하면 불을  
연상케 되었다.

화재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